

# ☐☐ 마태 25 ☐☐

- 1. 세상 끝의 하늘의 왕국과 열 처녀 비유.....1
- 2.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.....2
- 3. 왕께서 천년 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심.....4

## 1. 세상 끝의 하늘의 왕국과 열 처녀의 비유

(마 25:1)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찾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.

(마 25:2)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

(마 25:3)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

(마 25:4)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.

(마 25:5)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

(마 25:6)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, 보라, 신랑이 오는도다. 너희는 그를 찾으러 나오라, 하니라.

(마 25:7)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

(마 25:8)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,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, 하거늘

(마 25:9)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, 그리할 수 없노라.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, 하매

(마 25:10)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.

(마 25:11)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, [주]여, [주]여,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, 하나

(마 25:12)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,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, 하였느니라.

(마 25:13)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. 너희가 사람의 [아들]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.

## 2. 세상 끝의 하늘의 왕국과 열 처녀의 비유

(마 25:14)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.

(마 25:15) 그가 하나에게는 오 달란트를, 다른 하나에게는 이 달란트를, 다른 하나에게는 일 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.

(마 25:16) 이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오 달란트를 더 만들고

(마 25:17) 이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 달란트를 더 벌되

(마 25:18) 일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.

(마 25:19)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

(마 25:20) 이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오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, 주인이여, 주께서 내게 오 달란트를 맡기셨는데, 보소서, 내가 그것들 외에 오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, 하매

(마 25:21)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, 잘하였도다. 선하고 신실한 종아,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, 하니라.

(마 25:22) 이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, 주인이여, 주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, 보소서,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, 하매

(마 25:23)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, 잘하였도다. 선하고 신실한 종아,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, 하니라.

(마 25:24) 그 뒤에 일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, 주인이여,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흠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

(마 25:25)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. 보소서,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, 하매

(마 25:26)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, 악하고 게으른 종아,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

(눅 19:11)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[하나님]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.

(눅 19:12)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,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

(눅 19:13)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십 므나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,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, 하니라.

(눅 19:14)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,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, 하였더라.

(눅 19:15)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

(눅 19:16)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, [주]여, 주의 일 므나로 십 므나를 벌었나이다, 하매

(눅 19:17) 그가 그에게 이르되, 잘하였도다, 선한 종아,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, 하니라.

(눅 19:18)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, [주]여, 주의 일 므나로 오 므나를 벌었나이다, 하매

(눅 19:19)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,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, 하니라.

(눅 19:20)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, [주]여, 보소서, 주의 일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.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.

(눅 19:21)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, 하매

(눅 19:22) 그가 그에게 이르되, 사악한 종아,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.

(눅 19:23)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지 아니하였느냐?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, 하고

흘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

(마 25:27)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.

(마 25:28)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십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.

(마 25:29)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.

(마 25:30)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 던지라.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, 하니라.

(눅 19:24)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, 그에게서 일 므나를 빼앗아 십 므나 가진 자에게 주라, 하매

(눅 19:25) (그들이 그에게 이르되, [주]여, 그에게는 십 므나가 있나이다, 하더라.)

(눅 19:26)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,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.

(눅 19:27)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, 하였느니라, 하시니라.

### 3. 왕께서 천년 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심

(마 25:31) 사람의 [아들]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

(마 25:32)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

(마 25:33)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.

(마 25:34) 그때에 [왕]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, 오라, 내 [아버지]께 복 받은 자들아,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.

(마 25:35)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

(마 25:36)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, 하리니

(마 25:37)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, [주]여,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?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?

(마 25:38)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?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?

(마 25:39)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? 하리라.

(마 25:40) [왕]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,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, 하고

(마 25:41)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, 저주를 받은 자들아,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.

(마 25:42)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

(율 3:1) 보라,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대에

(율 3:2)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.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

(율 3:3)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.

(율 3:4) 참으로 그러하였도다.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,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?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?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.

(율 3:5)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

(율 3:6)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.

(율 3:7) 보라,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니

(율 3:8) 즉 내가 너희 아들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들은 먼 곳에 거하는 백성 곧 스바 사람들에게 저들을 팔리라. {주}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.

(율 3:9) ¶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이다.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아와 올라오게 할지이다.

(율 3:10)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이다. 너희의 가지 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이다. 약한 자는 말하기를, 나는 강하다, 할지이다.

(율 3:11) 모든 이교도들아, 너희는 집결할지이다. 울지이다.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이다. 오 {주}여,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.

(율 3:12)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이다.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.

(율 3:13) 너희는 낫을 대라. 수확할 것이 익었도다. 너희

(마 25:43)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, 하리니

(마 25:44) 그때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, [주]여,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? 하리라.

(마 25:45)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,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, 하리라.

(마 25:46)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, 하시니라.

는 와서 밟으라.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.

(을 3:14) {주}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,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.

(을 3:15)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.

(을 3:16) {주}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. 그러나 {주}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.

(을 3:17)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{주} 너희 [하나님]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,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.

(을 3:18) ¶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{주}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.

(을 3:19)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.

(을 3:20)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.

(을 3:21)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{주}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.